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우영



2007년 정상회담의 약속대로 남북...

남북한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남북한간의 대화가 활발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려가...

남북회담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되는 것은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회담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핵심이 되었던 장관급 회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국방장관 회담도 순항하면서 정례화되고, 부총리급이 주도하는 경제관련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리고 남북한간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회문화협력추진...

위원회가 가동되면 통일부 장관이 참여하였던 기존의 장관급 회담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 전반에 관련되어있으면서도 총리급 회담을 비롯한 전문분야 회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다.

2007년 정상회담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면서도, 합의사항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담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진행...

될 각종 회담의 수준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실무회담, 장관급 회담 그리고 총리급 회담과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각급 회담에 다루어야 할 주제들의 차원과 격이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것을 최고위급이 결정하여야 하는 북한의 딱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사항 도출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북한간 소통구조의 정비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합의가 중요하겠지만, 먼저 남측 내에서 각급 회담의 위계관계 정립과 각급 회담 담당 부처 및 회담 간 대상 정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총리급 회담이 정점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각 회담을 관련 주제별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회담간의 위계 문제 등은 단순히 회담의 준비를 넘어서서 정부내 대북 문제 및 통일문제의 업무분장도 연결된다는데 사안의 복잡성이 있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서 통일부만이 남북관계 업무를 관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제문제는 재경부, 문화교류는 문화부 그리고 인도적 지원문제는 복지부의 전문성이 절실해지면서 통일부의 능력은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담의 준비는 곧 정부내 대북문제 및 통일문제의 업무분장의 재고가 필요하게 된다.

정권 교체기에 정부의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남북관계의 활성화로 비롯된 각급 회담의 증가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회담간 관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IMF 10년, 중산층 사라진 광주·전남

21일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IMF 극복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금융회사 30%가 문을 닫았고, 3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이 사라졌다.

10년이 지난 지금 광주·전남지역 경제도 외환위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 이후 지역경제는 저성장, 저고용, 저물가 등 '저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활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투자위축과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성장률은 8~9%에서 3~5%로 반 토막이 났다. 실업자는 지난 96년 2만9천300여명에서 4만9천여명으로 2만명 이상이나 늘었다.

요즘 지역경제는 극심한 주택경기 침체로 '제 2의 IMF 사태'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가 현실화되면서 지역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꺼져 버린 성장동력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부동산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BBK 연루 의혹'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 추가조작사건 연루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가족은 정치권의 공방에 불을 붙였다. 김씨의 부인은 21일 미국에서 이명박씨 사본을 제시하며 이 후보가 투자자문사인 BBK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명박씨는 양측의 주장이 맞서 있는 상황에서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김민들은 첨예한 공방에 혼란스럽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폭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의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 정국은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해도 정치권이 승복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공방이 치열한 만큼 수사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첨예한 공방에 혼란스럽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無等鼓

세계 최초로 박람회 열린 곳은 영국이다. 1851년 5월1일 빅토리아 여왕은 30만장의 유리...

축구장 11개 넓이에 3층 높이의 수정궁에는 기관차와 선박, 옹 엔진, 방직기 등 당시 최첨단 기기 1만3천여점이 출품됐고 입장객 수만 600만명을 넘어섰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개최국의 산 업과 문화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절호의 기회다.

참포 유치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색있는 박람회를 열어 적잖은 수익을 올리는 도시들도 많다.

15만6천여명의 고용창출 등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선업의 존재를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개최국의 산 업과 문화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절호의 기회다.

엑스포



15만6천여명의 고용창출 등 막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선업의 존재를 알리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 전 세계에서 통하는 진리다. 통계학적, 수학적으로는 받는 사람은 많고 주는 사람은 적어져야 하는데 실상은 반대다.

러져 있는 것과 달리 통계 결과는 수입이 가장 적은 민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을 허위 보고하기 때문이라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비밀이다.

베푸는 행복

있으면 적십자 등을 통해 도와주려고 한다. 정치적으로는 반미를 외치더라도 말이다.

을 기대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은 재산은 대물리지 않고 끝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 자체도 남을 돕는 기부를 권장하도록 법제화돼 있다. 기부금으로 낸 만큼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기부금이나 교회에 낸 헌금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이왕이면 세금 내는 대신 기부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정부가 신고액을 그대로 믿는다. 다만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 정밀 검사를 하다가 허위 보고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즉시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리고 그 이후부터 또 정밀 검사 대상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돌아보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국민들이 아직 많다.

한국의 교육 수준과 수입이 아시아 국가 출신 인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작황이 좋으면 작물값이 폭락, 밭을 갈아

있는 일이 흔한 게 현실이다. 채소값 조금 올랐다고 '금치, 금장'이라는 말로 크게 보도하면 농민들의 설 자리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같은 기사라도 "올 해 2~3개월 줄곧 내린 비 때문에 감장용 채소의 작황이 안좋아 값이 약간 올랐더라도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 배추와 무로 감장을 담근 것이 이상생하는 길"이라는 내용의 소식을 보도하면 안될까.

▲이종학·담양군 수북면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이광운

최근 수도권 소재 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시문제가 유출되어 교육을 바라본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대학 입시준비기관으로 변모한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때문일 것이다.

외고 정상 운영, 입시과열 해소한다

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다.

는 국립 통역대학교 같은 학교가 있어 할 것이다. 또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취지에서 볼 때 그 학교 수와 입학정원이 너무 많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교육부에서는 외고의 경우 3학년에서 전교과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어 교과에 치중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교육부의 정책적 배려와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으로 외국어고등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져, 외교에 대한 입시과열 때문에 급변해 일어났던 입시문제 유출과 같은 사건이 앞으로 더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전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모집하여 변칙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래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logos,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